

한라반 학습 계획

일시 : 2019년 4월 27일

교사 : 김은아

목표 : 1. 지난 시간 수업내용을 쪽지시험을 통해 복습할 수 있다.

2. <조선 후기 사회.경제적 변화와 문화>에 대해 알고, 조선 후기 사회의 모습을 알 수 있다.

3. TOPIK 문법 문제를 통해 문법에 대해 공부할 수 있다.

4. 자주 사용되는 한자에 대해 알 수 있다.

5. 관용어의 쓰임을 알 수 있다.

6. <천주교의 시련>에 대한 읽을 자료를 읽고 내용을 이해할 수 있다.

교재 : 네이버 초등 백과사전, 7급 한자교재, 살아있는 한국어 관용어, SAT KOREAN

교 시	수 업 내 용
1교시 9:30-10:15	숙제 검사 및 쪽지시험
2교시 10:15-11:00	<홍길동전>을 읽으며 조선후기 사회의 모습 이해
점심 11:00-11:20	
3교시 11:20-12:00	TOPIK 문법 문제(12과) 풀기
4교시 12:00-12:40	<조선 후기 사회.경제적 변화와 문화> 읽고 조선 후기 공부
숙제	1. 한자 2. 관용어 3. 읽기자료

오늘 배운 내용과 숙제로 공부해 온 내용을 다음주에 쪽지시험 봅니다.

바자회는 5/4 입니다. 많은 참여 바랍니다.

<어휘>

1. 적자 : 정실이 낳은 아들.
2. 호부호형 :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고, 형(兄)을 형(兄)이라고 부름
3. 흥계 : 흥악한 계략. [유의어] 궁궐이, 음모4, 속셈
4. 우두머리 : 어떤 일이나 단체에서 으뜸인 사람.
5. 횡포 : 제멋대로 굴며 몹시 난폭함.



7급 빨리따기

월 일
이름

확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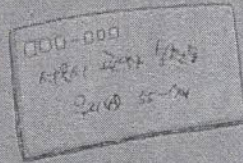
住

亻 + 主 = 住

사람 인

주인/임금 주

사람(亻)이 일정한 곳에 주인(主)으로 사는 데서
살다, 머무르다를 뜻합니다.



훈살 음주

1(人)부수(총 7획)

住 住 住 住 住 住 住

필순에 따라 빈칸에 住를 쓰고, 훈과 음을 쓰세요.

住	住	住	住	住	住	住
살주	살주	살주	살주	살주	살주	살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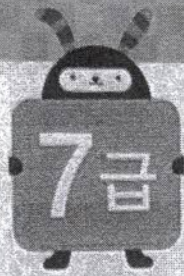
빈칸에 漢字(한자)의 음을 쓰고, 住가 쓰인 낱말을 읽어 보세요.

·住民() : 일정한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

(民 : 백성 민)

·住所() : 사람이 살고 있는 곳이나 기관, 회사 따위가 자리 잡고 있는 곳을
행정 구역으로 나타낸 이름.

(所 : 바 소)



빨리따기

월 일
이름



所

所 → 所 → 所



본래는 나무를 베는 도끼 소리를 뜻하였으나,
후에 **곳, 장소**를 뜻하게 된 한자입니다.

훈바 음소

戶부수(총 8획)

所所所所所所所所

필순에 따라 빈칸에 所를 쓰고, 훈과 음을 쓰세요.

所	所	所	所	所	所	所
바소	바소	바소	바소	바소	바소	바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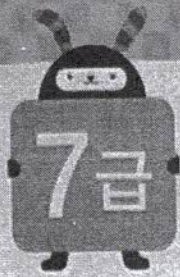
빈칸에 漢字(한자)의 음을 쓰고, 所가 쓰인 낱말을 읽어 보세요.

· 所重 () : 매우 귀중함.

(重 : 무거울 중)

· 所有 () : 가지고 있음.

(有 : 있을 유)



7급 빨리따기

월 일
이름

확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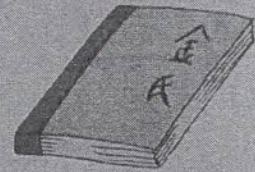
姓

女 + 生 = 姓

계집녀

낳생

어떤 집 여자(女)로부터 태어난(生) 같은 혈족의 이름, 즉 성을 뜻합니다.



훈성 음성

女부수(총 8획)

姓姓姓姓姓姓姓姓

필순에 따라 빈칸에 姓을 쓰고, 훈과 음을 쓰세요.

姓	姓	姓	姓	姓	姓	姓
성성	성성	성성	성성	성성	성성	성성

빈칸에 漢字(한자)의 음을 쓰고, 姓이 쓰인 낱말을 읽어 보세요.

·姓名() : 성과 이름.

(名 : 이름 명)

·同姓() : 같은 성.

(同 : 한가지 동)



빨리따기

월 일
이름

확인

名

비 → 공 → 名

저녁(夕)에는 사람이 잘 보이지 않아 입(口)으로 불러야 한다는 데서 이름을 뜻합니다.



훈 이름 음명

口부수(총 6획)

名 夕 夕 夕 夕 夕 夕

필순에 따라 빈칸에 名을 쓰고, 훈과 음을 쓰세요.

名	名	名	名	名	名	名
이름 명	이름 명	이름 명	이름 명	이름 명	이름 명	이름 명

빈칸에 漢字(한자)의 음을 쓰고, 名이 쓰인 낱말을 읽어 보세요.

· 名山() : 이름난 산.

(山 : 메 산)

· 名所() : 경치나 고적, 산물 따위로 널리 알려진 곳.

(所 : 바 소)



빨리따기

월 일
이름

확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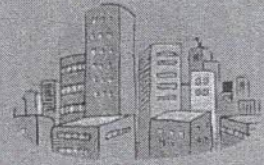
市

一 + 巾 = 市

돼지해말 두

수건 건

물품(巾)을 사고팔기 위해 사람들이 가는(一) 장소인 **저자(시장)**를 뜻합니다.



훈저자 음시

巾부수(총 5획)

市市市市市

필순에 따라 빈칸에 市를 쓰고, 훈과 음을 쓰세요.

市	市	市	市	市	市	市
저자시	저자시	저자시	저자시	저자시	저자시	저자시

빈칸에 漢字(한자)의 음을 쓰고, 市가 쓰인 낱말을 읽어 보세요.

· 市民 () : 그 시에 사는 사람.

(民 : 백성 민)

· 市長 () : 지방 자치 단체인 시의 책임자.

(長 : 긴 장)

월 일
이름

확인

6 住所를 정확하게 기입해 주세요.

훈 음

7 일기장은 나의 가장 所重한 보물 중 하나입니다.

훈 음

8 미미와 나는 同姓 동본입니다.

훈 음

9 지리산은 우리나라 名山 중 하나입니다.

훈 음

10 市長은 우리 시의 발전을 위해 노력합니다.

훈 음

대화



아사코: 마리오 씨, 사람들이 사랑에 빠지면 예뻐지나 봐요.

마리오: 그게 무슨 소리에요?

아사코: 제니 씨가 요즘 연애를 해서 그런지 점점 예뻐지는 것 같아서요.

마리오: 제니 씨한테 남자 친구가 생겼어요?

아사코: 네, 얼마 전에 소개팅에서 만난 사람에게 첫눈에 반한 모양이에요.

마리오: 그래요? 드디어 이상형을 만났군요.

아사코: 음, 그런데 우연히 제니 씨 남자 친구를 본 적이 있었는데 솔직히 외모는 그저 그랬어요.

마리오: 하하하, 제 눈에 안경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제니 씨 눈에는 그 남자 친구가 누구보다도 멋있고 잘생겨 보일 거예요.

아사코: 그렇겠죠? 나도 하루 빨리 내 이상형을 찾아야겠어요.

※ 제 눈에 안경이다: 자기 눈에만 좋아 보이다

활용예문

▶ 저런 사람을 좋아하는 걸 보면 제 눈에 안경이라는 말이 생각나요.

▶ 우리 언니는 제 눈에 안경이라고 이런 웃만 좋아해요.

▶ 가: 선희는 민수가 멋있고 잘생겼대, 난 잘 모르겠는데…….

나: 제 눈에 안경이라고 하잖아. 선희가 민수를 좋아하니까 아마 그런 말을 했을 거야.

새 어휘와 문형

☐ 사랑에 빠지다 ☐ 점점

☐ 소개팅

☐ 첫눈에 반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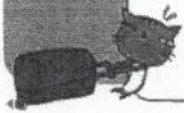
☐ 드디어

☐ 이상형

☐ 외모

☐ 그저 그렇다

☐ -아서/어서 그런지



함께해요



심리 테스트로 여러분에게 어울리는 이상형을 찾아보세요.

어느 날 흰 새가 여러분에게 날아옵니다. 그런데 흰 새는 입에 무엇을 물고 있습니다. 이 흰 새가 입에 물고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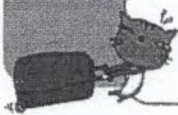
당신에게는 이런 사람이 어울려요.

- ♣꽃다발을 선택한 남성 - 얼굴이 예쁘고 정열적인 사람
(꽃다발을 선택한 남성은 얼굴이 예쁘고 정열적인 여성이 잘 어울려요.)
- ♥꽃다발을 선택한 여성 - 얼굴이 잘생기고 개성 있는 사람
- ♣보석을 선택한 남성 - 부지런하고 정직한 사람
- ♥보석을 선택한 여성 - 운동을 좋아하는 활발한 사람
- ♣연애편지를 선택한 남성 - 귀여운 사람
- ♥연애편지를 선택한 여성 - 재미있고 사교적인 사람
- ♣아기를 선택한 남성 - 조용하고 여성적인 사람
- ♥아기를 선택한 여성 - 평범한 사람
- ♣뱀을 선택한 남성 - 활발하고 재미있는 사람
- ♥뱀을 선택한 여성 - 행동이 빠르고 성실한 사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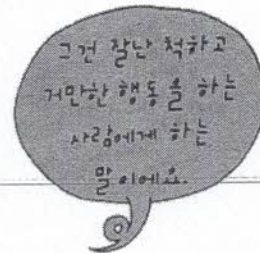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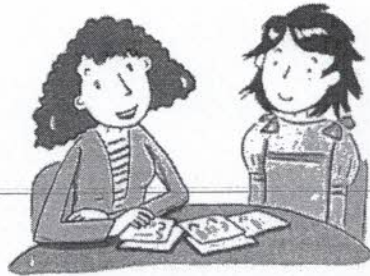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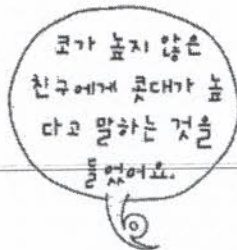


한 걸음 더

- ▶ 눈(에) 띄다(ㄴ)
- ①두드러지게 드러나다 ②발견되다
한국어 발음이 눈에 띄게 좋아졌어요.
- ▶ 눈 밖에 나다(ㄴ)
- 미움을 받다
수업 시간에 자꾸 떠들면 선생님 눈 밖에 날 거야.
- ▶ 색안경(을) 끼다(ㄴ)
- 편견을 가지다
여자들이 담배를 피우면 색안경을 끼고 보는 사람들이 많아요.



대화



지영: 지난주에 부산에 가서 찍은 사진이에요. 제니 씨가 제일 예쁘게 나왔는데 한번 보세요.

제니: 그래요? 사실 제가 실물보다 사진이 더 예쁘게 나오는 편이에요.

지영: 제니 씨는 눈도 크고 콧대도 높고 참 미인이에요.

제니: 호호, 지영 씨. 비행기 태우지 마세요. 지영 씨도 다른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큼 귀엽고 예뻐요.

지영: 아이고, 놀리지 마세요. 난 어릴 때부터 코가 낮아서 거울을 볼 때마다 고민이었어요. 그런데 제니 씨, 콧대가 높다는 말에 다른 뜻이 있는 거 알아요?

제니: 아니요. 어떤 뜻이 있어요?

지영: 잘난 척하고 거만한 행동을 하는 사람들에게 쓰는 말이에요. 자존심이 강한 사람에게는 콧대가 높은 사람이라고 하고요.

제니: 그럼 콧대가 높다는 말이 꼭 좋은 말은 아니네요.

* 콧대(가) 높다: 잘난 척하고 거만하다

활용예문

▶ 저는 잘난 척하는 콧대 높은 여자에게는 관심이 없어요.

▶ 제가 아는 어떤 친구는 텔레비전에 한 번 나온 후로 콧대가 높아졌어요.

▶ 가: '콧대 높은 미술관' 이라고 들어 봤어요?

나: 네, 신문에서 읽은 적이 있어요. 관람객을 하루에 100명으로 제한한다지요?

새 어휘와 문형

□ 실물

□ 콧대

□ 부러워하다

□ 놀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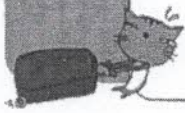
□ 거만하다

□ 자존심

□ 관람객

□ 제한하다

□ -(으)ㄴ 만큼



함께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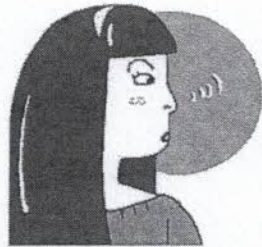
다음을 읽고 친구와 같이 이야기해 보세요.



'클레오파트라'의 코가 조금만 낮았으면 세계의 역사가 달라졌을 것이다'라는 말은 유명한 프랑스의 철학자 파스칼(Pascal)이 한 말입니다. 여기에서 '클레오파트라의 코'는 그녀의 '미모'를 나타내는 말이기도 하지만 '콧대가 높다'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여러분의 콧대가 조금 더 높았다면 지금과 어떻게 달라졌을까요?



- _____
- _____
- _____
- _____

한 걸음 더

▶ 콧대(가) 세다(=)

콧대가 세기로 유명한 감독들이 그 배우와 영화를 찍고 싶어 한다.

▶ 콧대를 꺾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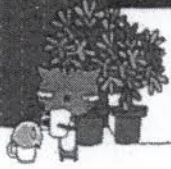
자만심을 꺾다

한국 팀은 유럽 팀과의 경기에서 1승을 거두어 콧대를 꺾었다.

▶ 코가 땅에 닿다(⇨)

머리를 깊이 숙이다

한 학생이 선생님께 코가 땅에 닿도록 인사를 했다.



연습해요



보기의 관용어를 넣어서 대화를 만들어 보세요.

보기

제 눈에 안경이다

색안경을 끼다

콧대가 높다

콧대를 꺾다

1 가: 오후에 옆 반과 농구 시합하는 게 어때?

나: 좋아. 이번에는 꼭 이겨서 _____.

2 가: _____지만 어떻게 저런 사람과 사귄 수 있을까?

나: 사랑을 하면 상대방의 모든 것이 다 좋아 보이니 봐.

3 가: 예전에는 국제결혼을 한다고 하면 _____고 보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나: 맞아요. 하지만 요즘은 사람들의 생각이 많이 바뀐 것 같아요.

4 가: 자존심이 아주 강한 사람을 뭐라고 해요?

나: _____사람이라고도 해요.

5 가: 그 가게에는 예쁘고 가격도 싼 가방도 많은데 왜 이걸 샀어?

나: 난 이게 마음에 들었어.

가: _____.

6 가: 철수 씨가 유학을 다녀온 후부터 _____.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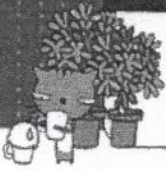
나: 그래요? 예전에는 참 겸손한 사람이었는데.....



여러분이 대화문을 만들어 보세요.

가: _____

나: _____



이야기해요

제 눈에 안경이다 / 콧대(가) 높다



다음을 읽고 대화를 만들어 보세요.

케빈: 콧대 높기로 유명한 사라가 민우에게
프러포즈를 했다.

준기: 뭐라고? 그게 사실이야. 제 눈에 안
경이라고 하지만 민우를 좋아할 줄
은 정말 몰랐어.

케빈: 나도 그 소식 듣고 깜짝 놀랐어. 민
우가 성격은 좋지만 사라가 좋아할 스타일은 아닌 것 같은데.

준기: 아마도 사라 눈에 콩깍지가 씌었나 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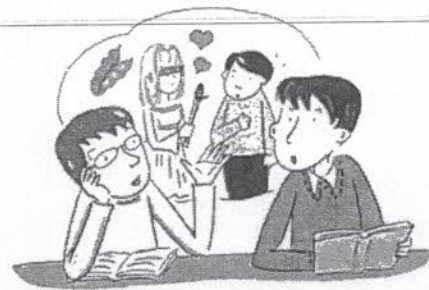
케빈: 콩깍지? 그게 무슨 말이니?

준기: 콩깍지는 콩의 껍질이야. 눈에 콩깍지가 씌면 앞이 잘 보이지 않는 것처럼 상대
방의 단점이 잘 보이지 않는다는 말이야. 모든 것이 사랑스럽게 보이는 거지.

케빈: 아, 그렇구나. 지영 씨 눈에도 콩깍지가 씌었으면 좋겠어. 그럼 나를 좋아하겠
지?

준기: _____

케빈: _____



위의 대화문을 읽고 질문에 대답하세요.

- 1 준기는 케빈의 말을 듣고 왜 제 눈에 안경이라고 했어요?
- 2 눈에 콩깍지가 씌었다는 말은 무슨 뜻이에요?
- 3 사람들은 사랑에 빠지면 어떤 점이 달라져요?

<천주교의 시련>

1. 술렁이는 나라, 새로운 희망

“전염병에 물난리까지 계속되는데 나라에선 뭘 하는지 몰라!”

“뭘 하긴, 벼슬아치들은 제 뱃속을 채우느라 정신 없고, 돈 있는 놈들은 벼슬을 사느라 정신 없지.”

“맞아. 돈만 있으면 양반도 되는 세상인데 가난한 우리가 눈에 들어오기나 하겠어.”

허름한 옷차림의 농민들이 논두렁에 앉아 하는 말이었어요.

“이렇게 억울하게 살 바에야 천주교나 믿어 볼까?”

“천주교?”

“그래. 천주교에서는 사람은 누구나 평등하다잖아. 양반도 없고, 노비도 없고 말이야.”

농민들은 꿈꾸던 세상이 온 것처럼 들뜬 표정이었어요.



“큰일 날 소리 말게. 천주교인이 되었다가 들통나면 꼼짝없이 죽어. 나라에서 천주교를 엄하게 다스리고 있잖아.”

정조가 세상을 떠난 뒤, 가난하고 헐벗은 백성들에게 천주교는 두려움이면서도 한편으로는 희망이었어

요. 그래서 용기 있는 백성들을 중심으로 천주교는 빠르게 퍼지고 있었지요. 또 백성들이 두려움을 이기고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이끄는 이들이 있었는데, 이들이 바로 신부(神父)¹⁾들이었어요.

2. 조선 최초의 신부 김대건



김대건 동상서울 합정동 양화 대교 부근에 있는 절두산 순교 성지에는 우리 나라 최초의 신부인 김대건 동상이 세워져 있다.

1845년, 김대건은 우리 나라 최초의 신부가 되었어요. 그는 중국에서 천주교 신학을 공부한 뒤에 압록강을 건너와 전국을 돌며 몰래 천주교를 알렸어요. 그러던 중 황해도에서 포졸들에게 잡힌 김대건은 해주 관아로 끌려와 심하게 매를 맞았어요.

“어디서 무엇을 하러 온 놈이냐?”

관리가 묻자 김대건은 중국말로 대답했어요.

“나는 김대건으로 중국에서 천주교를 공부하고 돌아왔소이다.”

중국말에 서툰 관리들은 김대건이 중국 사람인 줄 알았어요. 사실 김대건이 중국말로 대답한 것은 자신을 따르던 천주교 신자들에게 피할 시간을 벌여 주기 위한 것이었어요.

“저 중국 천주학쟁이를 당장 한양으로 옮겨라!”

김대건은 한양으로 끌려와서도 끝까지 자신이 조선인임을 밝히지 않았어요. 그러다 자신과 함께했던 천주교인들이 충분히 피했을 즈음 사실대로 털어놓았어요.

“나는 충청도에서 태어난 이 나라 백성이요. 열다섯 살에 중국으로 건너가 안드레아라는 이름으로 영세(領洗)²⁾를 받았소.”



김대건은 1822년 충남 당진의 한 마을에서 태어났어요. 김대건의 집안은 천주교 집안으로 그의 증조할 아버지는 10년 간 감옥에 갇혀 있다 숨을 거두었어요. 아버지 역시 천주교인이라는 이유로 목숨을 잃었지요.

“뭐라고? 네가 조선 사람이었던 말이나? 하지만 네가 쓴 편지는 외국말로 되어 있질 않느냐?”

관리가 놀라 물었어요.

“나는 스물다섯 살이지만 여섯 나라의 말을 할 수 있소. 그리고 나는 하느님의 말씀을 전하는 천주교 신부요.”

당당한 기세(氣勢)³⁾에 눌린 관리가 타이르듯 말했어요.

“너는 천주교를 믿어 나라를 배신한 죄인이다. 하지만 지금이라도 천주교를 버리고 나라를 위해 일한다면 용서해 주마.”

“나는 죽을지언정 하느님을 버리진 않겠소.”

김대건은 관리들 앞에서 여전히 당당했어요.



천진암천주교 성지의 하나로 천주학을 통해 학문적 지식을 종교적 신앙으로 변화시킨 계기가 된 곳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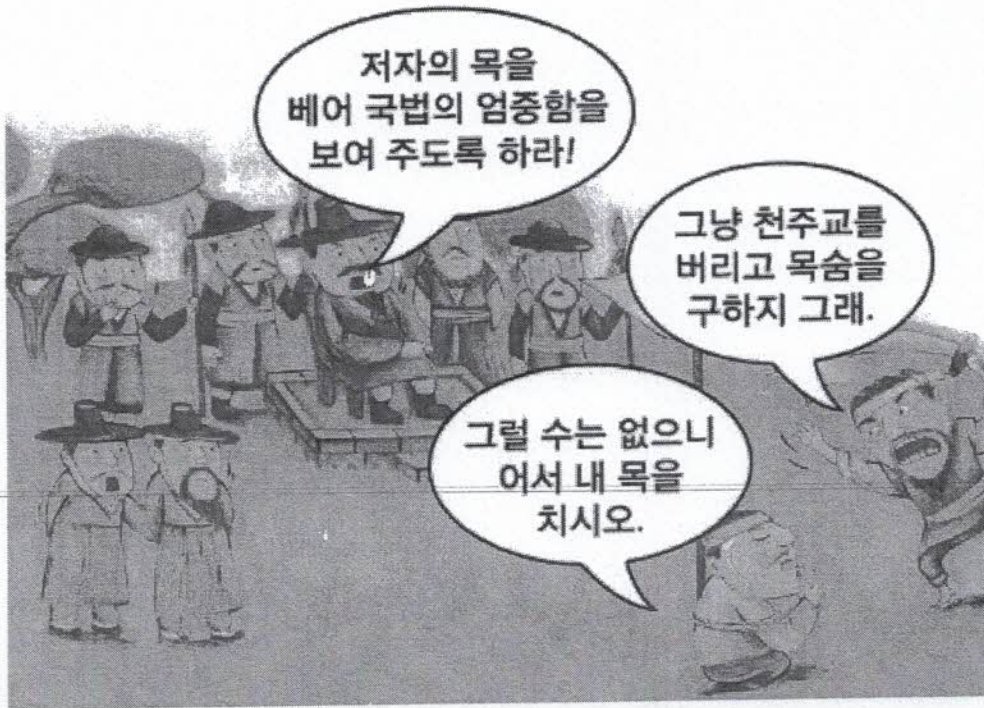
〈천주교는 왜 박해를 받았나?〉

천주교는 일부 양반들에 의해 서학이라는 학문으로 연구되면서 점차 양반, 중인들에게 신앙으로 자리 잡기 시작했어요. 모든 인간은 평등하고, 현실에서 고난 받더라도 올바르게 살면 천당에 갈 수 있다는 천주교의 교리가 힘 없고 약한 백성들에게 위안이 되었지요.

그런데 천주교 교리 중에 하느님만 섬겨야 하는 내용 때문에 우리 나라의 유교적 제사를 거부했어요. 그래서 나라에서는 인간 평등 사상과 제사를 거부하는 천주교가 사회 질서를 무너뜨리는 위협적인 것이라 여겨 박해(迫害)⁴⁾를 했던 거예요.

3. 희망 속의 순교

관리들은 김대건의 변함없는 태도를 보고 그를 설득하는 게 더 이상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앞서 천주교를 믿는 사람들처럼 목을 베어 죽이기로 했어요. 1846년 9월 어느 날, 김대건은 한강의 새남터(지금의 용산)로 끌려 나왔어요. 새남터는 이미 수많은 천주교인들이 피를 흘리며 죽어 간 곳이



“오늘 나를 죽이더라도 천주교를 막진 못할 것이요. 내일이면 더 많은 신부들이 들어와 조선의 백성들과 함께할 것이요.”

김대건은 구경 나온 사람들을 향해 소리친 뒤 기도를 올렸어요. 그러자 잠시 전까지만 해도 웅성거림으로 가득했던 새남터는 물을 끼얹은 듯 아무런 소리도 들리지 않았어요. 오직 김대건의 낮은 기도 소리만이 허공으로 퍼졌어요.

“오늘 저의 죽음이 이 땅에 천주교가 서는 밑거름이 되게 하소서.”

기도를 올리는 김대건의 얼굴은 행복한 꿈을 꾸고 있는 것처럼 평온해 보였어요. 주위에 몰려든 사람들은 그런 김대건을 경건한 마음으로 바라보았어요. 기도가 끝나자 형을 시행하는 관리가 소리쳤어요.

“당장 저자의 목을 베어 국법의 엄함을 모든 백성들에게 보여 주어라!”

관리의 명령이 떨어지자 큰 칼이 허공을 갈랐어요. 결국 김대건은 죽음을 맞고 말았어요. 김대건의 죽음 이후에도 천주교를 억누르기는 마찬가지였어요. 그러나 가난으로 굶주리고, 신분으로 차별 받는 백성들에게서 천주교를 완전히 떼어 놓을 수는 없었지요.



새남터 순교 기념 대성전서울 용산에 있는 천주교의 성지로, 1866년 병인박해 때 서양인 신부 5명과 많은 한국인 신자들이 새남터에서 죽음을 당했다.

※ 잠깐 퀴즈

김대건이 처형된 곳은 한강의 어디인가요?

정답 : 새남터

4. 내용 정리

천주교에 대한 탄압은 순조와 헌종 때 가장 심했습니다. 권력을 쥔 벼슬아치들은 모든 인간은 평등하다는 천주교의 주장이 백성들에게 퍼지지 못하도록 온갖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방해했습니다.



김대건은 우리 나라 최초의 신부로, 중국에서 신학을 공부하고 돌아와 백성들에게 천주교를 전하고자 노력했습니다. 그는 나무꾼으로 변장을 하면서까지 백성들에게 천주교를 전하다 1846년 관가에 잡혀 한강의 새남터에서 순교하였습니다.





연습해요



보기의 관용어를 넣어서 대화를 만들어 보세요.

보기

손을 보다 손을 쓰다 한눈을 팔다 눈에 밝히다

- 가: 오늘부터 _____ 지 않고 공부에만 열중하기로 마음먹었어.
나: 잘 생각했어.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열심히 해 봐.
- 가: 하루 종일 일도 안하고 왜 그래요?
나: 병원에 있는 아이 얼굴이 자꾸 _____ 일을 못 하겠어요.
- 가: 지난주부터 계속 라디오가 이상해요.
나: 제가 _____?
- 가: 수출 계약이 취소될 뻔 했는지요?
나: 네, 다행히 빨리 _____ 일이 잘 해결됐어요.
- 가: 손이 왜 그렇게 부었어? 다쳤어?
나: 친구를 괴롭히는 못된 아이들을 _____ 다가 이렇게 됐어.
- 가: 빙판길에서 _____ 다가 미끄러졌어요.
나: 좀 조심하지 그랬어요. 다친 데는 없어요?



여러분이 대화문을 만들어 보세요.

가: _____

나: _____

<한자>

* 다음 한자를 읽어보세요.

1. 나는 出國 수속을 밟기 위해 인천 국제공항으로 갔습니다.
2. 운동장으로 선수들이 入場하고 있습니다.
3. 正直한 사람은 반드시 성공합니다.
4. 적들이 四方에서 우리를 포위했습니다.

<역사> 조선 서민들의 문화와 예술

1. 허균이 광해군 때 쓴 이 소설은 한글로 쓰인 우리 나라 최초의 소설이었다. ()
2. 이것은 광대가 이야기를 말과 창으로 엮어 부르는 것으로 조선 후기에 시작되어 정조때 발전을 이루었다. ()
3. ()는 30년간 판소리를 연구하여 이론을 정립하고 작품을 정리했다. 그가 정리한 판소리 5마당은 (), (), (), (), ()이다
4. 이것은 여러가지 표정의 탈을 얼굴에 쓰고 추는 춤으로 처음에는 농촌에서 많이 펼쳐졌고, 조선 후기에 장시가 발달하면서 장시의 상인들을 대상으로 공연하게 되었다. ()
5. 백성들이 사는 모습을 담아 낸 그림을 ()라고 한다.
6. 조선 시대의 풍속화가 중 ()은 중국 화풍에서 벗어나 우리민족만의 고유한 삶을 새롭게 그려냈다. 양반이나 부녀자들은 물론 무당이나 기생 등 다양한 사람들의 모습을 생생하게 그려냈다.
7. 조선 최고의 화가로 꼽히는 이 사람의 그림은 백성들이 실제로 사는 모습을 솔직하면서도 재미있게 담아냈다. ()
8. 조선 미술의 가장 큰 특징은 (함)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것은 (교)의 영향 때문이었을 것이다.
9. 서민 화가들은 백성들이 보고, 듣고 생각하고 바라는 그림을 주로 그렸는데, 이런 그림들을 ()라고 한다.